

제3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

일 시	2020. 6. 20. (토) 09:30 ~ 12:30
장 소	전주시청 4층, 회의실
참 석 자	이양재 위원장 등 11명 (재적인원 11명 전원 참석)
주요내용	○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(안) 검토 ○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세칙 검토 ○ 공론화 운영 용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검토 ○ 용역 계약 방식 검토 ○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(선정방법, 분야, 위원수 등) 논의 ○ 차기 회의 일정
회의결과	○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 내용 확정 - 시민공론화 안내, 옛 대한방직 부지 현황, 회의 공개사항, 자주하는 질문(Q&A), 시민의견 수렴 공간, 공지사항 및 자료실 ○ 공론화위원회 운영 세칙 확정 - 의제, 회의 공개 및 운영사항 등 ○ 공론화 용역 시나리오워크숍+공론조사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결정 ○ 공론화 용역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확정 ○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 논의 - 4개 그룹(정책, 도시전문가, 지역경제, 시민), 30명 내외로 구성 ○ 토지소유자(자광)의 제안 내용에 대한 설명 요청(차기 회의) ○ 차기 회의 일정 : 2020. 7. 1.(수) 16:00 ~

제3차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회의록

#. 개 회

발 언 자	발언 내용
간사	- 안녕하십니까?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간사입니다. 그럼,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시민공론화위원회 총 재적인원 11명으로서 현재 11명 참석하시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에 의거,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. - 금일 회의 안건은 제2차 회의록, 홈페이지 구성(안), 공론화위원회 운영 세칙(안), 공론화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와 내역서 및 용역 계약 방식을 검토하겠으며, 위 안건 사항 의결 후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 구성(분야, 인원, 선정방법)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- 그럼,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.

#. 제2차 회의록 및 공론화위원회 운영세칙(안) 검토

발 언 자	발언 내용
위원장	- 배부된 제2차 회의록 내용에 대하여 우선 검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잠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그러면 오늘 안건 중 제일 중요한 운영세칙(안)을 상정하겠습니다. - 간사님, 운영세칙(안)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간사	- 운영규정에 담겨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세칙에 담아보았습니다. 주된 내용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입니다. - 운영규정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의제를 몇 가지 포함시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시해 보았습니다. - 회의 개최 일정은 격주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였습니다. 다만, 협의를 통해 2/3 이상 참여가 가능한 날로 정하도록 했습니다. - 장소는 기본적으로 전주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장소변경이 가능하며, 장소변경 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 - 회의 진행과 관련, 위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위원 중에 호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. - 전문가 자문단이나 참관인 참석 및 발언권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 -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보고와 안건을 구분하고, 안건은 심의 안건과 토의 안건으로 정하는 것으로 작성했습니다. 심의 안건은 의결에 관한

	사항을 주로 다루고, 토의 안건은 결정사항이 아닌 논의대상에 대한 안건을 말합니다. - 회의 공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발언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 후 차기 회의 시 검토하여 회의록과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. - 또한, 위원이 회의록 내용이 본인 발언 취지와 맞지 않거나 왜곡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, 자유로운 토론을 위하여 회의록을 익명으로 표기한다고 했습니다. - 회의결과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의 종료 직후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에게 바로 알린다고 했습니다. - 다른 운영세칙이 많지 않아서 고창 및 광주 공론화를 참고했습니다.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하고, 어떻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세칙에 담았습니다. - 이상 운영세칙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,
위원장	- 감사님 수고하셨습니다. - 운영세칙(안) 제1조부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제2조 의제에 대해 운영세칙에 담을 필요성과 만약 담는다면 초안에 있는 5가지 정도로 담는 것이 좋은지 논의하겠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운영규정에는 의제가 들어가 있나요?
위원장	- 운영규정에는 포괄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는 5가지 의제 사항 이외에 ‘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’을 추가하여 향후 추가로 발생할 의제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
위원장	- ○○○ 위원님 의견은 초안에 제시된 의제를 담되, 6호에 별도로 ‘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’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.
○○○ 위원	- 5호의 ‘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포괄적 검토’라는 문구에 그 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나요?
○○○ 위원	- 그 부분은 5호 앞부분의 ‘미래상과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’ 것에만 관한 사항입니다. - 그것 이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예측할 수 없어서 제6호에 추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
위원장	- 그러면 6호에 ‘기타 공론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 정도로 담으면 좋겠습니다. - 의제에 대한 제 의견은 1호에 ‘용도변경’을 ‘용도와 관련한 사항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.

	- 5호에서는 ‘포괄적’이라는 단어를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- 앞서 나온 의견들에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, 6호 ‘기타 공론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에 추가해서 제2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- 다음으로 제3조 회의 개최 조항에서는 ‘협의를 통해’ 부분을 삭제하면 좋겠습니다. - 제3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제2조에 대해 한가지 의견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- 각 호에 대하여 ‘가능성 검토’보다는 ‘~에 관한 사항’으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,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하는데, 검토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
위원장	- 네,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. 제2조의 각 호는 ‘검토’라는 말보다는 ‘~에 관한 사항’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- 제3조는 ‘협의를 통해’ 부분을 삭제하여 ‘가능한 날로 정한다.’라는 문구로 수정하겠습니다. - 제4조 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제4조 제3항에서 ‘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’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- 왜냐하면, 운영규정에 보면 회의가 2/3 이상 개최하고,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
위원장	- ‘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으로 구분한다.’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회의 진행상, 토론사항이라고 하면 토론회가 되고, 나중에 안건을 처리할 때, 토론회 내용이 반영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또한, 토론사항까지 회의록에 다 작성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맞습니다. 국회 등에서 회의를 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본 회의에 들어가서는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. 회의록에 간담회 부분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
위원장	- 저도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으로 구분하고 회의록에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- 제가 ‘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’라고 말하는 부분부터 회의록에 작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. - 다음으로, 제5조 회의 공개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.

○○○ 위원	- 회의 공개를 비공개로 원칙으로 필요할 경우, 위원회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.
위원장	- 지난번에 ○○○ 위원님께서 ‘비공개’라는 단어 자체가 시민들에게 회의 내용을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- 저는 ○○○ 위원님의 의견처럼 간략하게 회의 내용을 정리하되, 비공개라는 용어를 좀 더 순화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.
○○○ 위원	- 제4조 제2항에 ‘전문가자문단과 참관인이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’는 문구가 포함됨에 따라 이미 비공개 회의가 아니라고 봅니다.
간사	- 여기서 참관인이라는 것은 지원단이나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는 경우 등 위원회 내부에서 지정한 참관인을 의미합니다. 시청에 다른 부서가 참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.
위원장	- 그렇다면 제5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?
간사	- 운영규정에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5조를 삭제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‘회의 공개’를 ‘회의결과 공개’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제5조 제2항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이는 위원회 동의에 포함된 내용입니다.
위원장	- 네,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. - 제1조는 변동없으며, - 제2조는 각 호의 ‘가능성 검토’ 부분을 ‘~에 관한 사항’으로 변경 제2조 5호의 ‘~에 대한 포괄적 검토’ 부분 삭제 6호에 ‘기타 공론화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’ 추가 - 제3조 제1항의 ‘협의를 통해’ 부분 삭제 - 제4조 제3항의 ‘~보고 안전과 의결 안전으로 구분’ - 제5조는 ‘회의결과 공개’로 바꾸고, 제1항은 축약하여 작성하고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. - 제6조와 제7조는 작성된 내용대로 결정하겠습니다. -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, ‘옛 대한방직부지관련 시민공론화 운영세칙’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#.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 내용	
발 언 자	발언 내용
위원장	- 다음으로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내용을 상정하겠습니다. -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[공개 및 공지사항]에서 ‘공개’를 명확히 ‘회의 공개’로 변경 반영하고, [자주하는 질문] 부분을 ‘자주하는 질문 (Q&A)’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위원장	-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.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그리고, 보통 중요도에 따라 목차 순서를 정하기 때문에 ‘자주하는 질문(Q&A)’를 목차에서 맨 마지막으로 옮겼으면 합니다.
위원장	- 좋습니다.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홈페이지 구성(안)과 관련 큰 틀에 대해 먼저 의견을 내주시고,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○○○ 위원님과 ○○○ 위원님 그리고 간사님께 별도 의견 주시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<보도자료>와 <회의결과>를 별도로 나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<보도자료>는 언론공개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,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. - 목차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. - 순서중 회의 공개가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[회의공개]로 별도로 표기하고, 공지사항은 [자료실]과 하나로 묶어 [공지사항 & 자료실]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
위원장	- 좋은 의견 같습니다. 다른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○○○ 위원님의 의견대로 [회의공개], [공지사항 & 자료실]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공론화 방식에 총 3가지가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으나, 추진일정에는 2가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, 이 부분은 변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네, 2단계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타운홀미팅, 공론조사 중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모두 표기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[자주하는 질문]에 대한 문항, 답변 작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여 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

위원장	-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. -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추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○○○ 위원, ○○○ 위원, 간사님께 개인적으로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- 그럼, 공론화 관련 홈페이지 구성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잠시 10분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
#. 공론조사 용역 관련 과업지시서, 내역서 및 용역 계약 방식 결정	
발 언 자	발언 내용
위원장	- 옛 대한방직 관련 공론화 조사 용역에 대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. - 공론화 조사 용역에 대한 요점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.
시 관계자	- 공론화 용역과 관련하여, 과업지시서, 내역서를 시나리오워크숍과 공론조사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으며, 용역 계약 방법에 대해 함께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. - 과업지시서와 내역서를 함께 배부해드렸으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.
위원장	- 아무래도 공론화 용역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이신 ○○○ 위원님과 ○○○ 위원님 두 분께서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봐주시고,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위원	- 용역기간이 10개월로 되어 있는데, 홈페이지 구성에는 10월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?
시 관계자	- 홈페이지에는 예상 종료 일정을 표기한 것입니다. - 용역을 추진하다 보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, 백서 제작 등이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기간을 길게 잡았습니다. - 용역 기간을 전부 채우는 것이 아니라, 최대한 일정을 당겨 용역이 종료되는 대로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.
○○○위원	- 그리고 이 과업지시서에 시나리오 워크숍하고 공론조사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
시 관계자	- 아무래도 공론조사 방식이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므로, 먼저 공론조사 방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, 이후 타운홀미팅 방식 결정 시 변경·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. -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은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
위원장	- 네 그럼 과업지시서 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- 과업의 내용적 범위가 중요한데 이 정도로 하면 될까요?
○○○ 위원	- 과업 수행 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내용 등 대부분 포함이 되어있어 이대로 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
위원장	- ○○○ 위원님 혹시 미흡한 요소가 있으면 말씀해주시죠
○○○ 위원	-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 - 1페이지에 시나리오워크숍 추진 ‘마. 분석 결과보고서 및 백서 제작 등’ 이 부분은 공론조사 후 백서제작 부분과 중복되어 빼고, 시나리오워크숍은 결과보고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- 3페이지에 시나리오워크숍 추진에 관한 사항 ‘가. 시나리오워크숍 세부 운영계획 설계 등’에서 ‘3)번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의 합의 형성 기법제시’, ‘4)번으로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 모델 제시’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- 그리고 시민참여단 100명 선정을 위해 1차 조사 규모가 1000명으로 가능할지 걱정됩니다. 지방의 경우 조사 후 참여율이 7%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1차 조사 규모를 정하는 것 보다 시민참여단 100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수행기관에 제의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. - 만약 인원수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, 1500명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시 관계자	- 사실 예산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.
○○○위원	- 한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. - 시민참여단 100명으로 정한 기준이 신뢰도하고 연관 된다고 보는데, 전주시민 67만명이라고 할 때 그 근거가 있을까요?
○○○위원	- 1500명 이상 하게 되면요 오차율이 줄어들진 않습니다. 4000명 5000명을 조사하나 1500명을 조사하나 똑같습니다. - 그리고 일단 범위가 67만명 정도 되니까 1000명보다는 1500명이 오차범위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.

○○○ 위원	- 1000명이나 1500명을 조사해도 좋으나 통계에서 얘기하는 신뢰도의 문제는 없는가요?
○○○ 위원	- 일단 통계에 분포상으로 보면 사회과학에서는 400명이상이면 비슷한 분포가 나온다고 봅니다. 중요한 것은 대표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, 나이, 연령, 거주지 등 이런 것만 확실하게 해주시면 1500명이면 매우 좋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제1차 조사 후 시민참여단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통계를 보면 80%가 상한이라고 보면 됩니다. 그러니까 참여의향자를 100명으로 모집하면은 실은 80명밖에 안 온다는 결론이거든요. -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여 인원을 정해야합니다. - 또, 한 가지는 참여 하겠다고 해놓고 참여 안하는 경우도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방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업지시서에 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는 국가단위와 서울특별시를 빼고 봤을 때는 전주시의 경우 한 150명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좀 고민을 해봐야 하겠습니다. - 1차조사 몇 명, 시민참여단 몇 명을 정해야할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여러 가지를 다 반영 했을 때 1차 조사 1500명, 시민참여단 120명 정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
위원장	- 네 그럼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○○○ 위원님이나 ○○○ 위원님께 검토를 맡기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-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그리고, 내역서 부분도 조금 검토해봤는데 제가 수행해왔던 입장에서 조금 과하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어느정도 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.
시 관계자	- 내역서가 타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 깊게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.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

위원장	- 네,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입찰 방법입니다. - 협상에 의한 것과 일반 입찰 방식이 있는데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- 저는 이 용역의 경우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괜찮을 것 같으며, 시기적으로 급한 사안이므로 긴급으로 해서 하면 소요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네 일반적으로 다른 공론화들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채택합니다.
위원장	- 혹시 그럼,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위원 모두	- 괜찮습니다.
위원장	- 알겠습니다. 시민공론화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고 긴급으로 발주하는 것을 결정되었습니다.
#. 참여단 구성 관련	
위원장	-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 이어 시나리오워크숍 참여자에 대한 부분들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- 간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준비해주신 구성(안)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포된 자료를 봐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-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, 구성 기준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. 이를 토대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. - 다만, 구성기준에 3번에 도시개발이나 건축사분들은 개발업자라고 불리는 분들인데,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이 가능한 그룹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인 통념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분을 폄하하는건 절대 아닙니다. 차리리 도시개발의 방향을 전환하고 용도변경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그룹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립니다.

○○○ 위원	- 구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다만, 나중에 그룹명을 정할때는 어느 정도 간단 명료하게, 건조하게 따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원래 시나리오워크숍이라는 것은 참여단 구성이 전제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데에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○○○ 위원님이 정말 잘 구분을 해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2번(도시계획 관련)하고 3번(소상공인 등)에서 약간 섞인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. - 예를들어 도시 전문가, 경제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야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. - 또 다른 의견을 드리자면 시나리오워크숍을 실제 운영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1차에서는 그룹별로 토의를 합니다. 각 그룹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각각의 그룹은 동수로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- 2차 토론을 할 때는 그룹이 섞이는 것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인원 수 배분을 동일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도 동의합니다. - 3번(도시개발 및 평가전문가) 그룹이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예를 들면 이해직접당사자인 자광을 빼고 그룹명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룹이 2개 그룹이나 1개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4개 내지 5개가 나뉘진다고 전제했을 때 지금 안으로 보면 3번째 그룹은 이해당사자, 직접당사자가 아닌 주변에 경제적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다라고 표가 날 정도로 아예 그룹으로 딱 확실히 넣는게 전체 구성에 있어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- 그리고, 시민의 그룹을 세분화하여 일반시민그룹과 NGO 전문가 시민그룹을 별도로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도 그부분은 동의합니다. - 시민도 일반시민과 상인그룹으로 나뉘서 해도 되지 않을까합니다.
위원장	- 그럼 한가지씩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- 첫 번째 정책입안 그룹 - 두 번째 도시전문가 그룹,

	- 세 번째 경제관련 그룹 - 네 번째 시민 그룹 - 그럼 일단 크게 4그룹으로 하는 건 모두 동의하시죠? - 네 번째 시민 그룹을 나누자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, 그냥 시민 그룹으로 갈 것인지 이것을 세분화할 것인지 이걸 한번 논의해주시죠.
○○○ 위원	- 저는 소상공인들, 소규모 상인들이죠.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, 그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는 차라리 경제그룹에 소상공인 협회나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와주시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- 그런데 또 한가지 고려를 할 점은 참여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나리오 개수는 많아지고 합의가 어려울 확률도 높아집니다. - 이러한 전제조건도 고려하셔서 구성 전체적인 것을 감안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- 저는 그래서 시민을 하나로 해도 되는데 굳이 2개로 구분을 해서 시민참여를 늘리자는 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표성이 있는 시민과 순수 일반시민으로 나눌 수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는 개인적으로 시나리오워크숍을 했을 때 시나리오가 많으면 안될 것 같고 그룹수를 그렇게 많이 늘리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4그룹이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입니다.
○○○ 위원	- ○○○ 위원님께서 지역소상공인을 포함시켰으면 한다는거는 저도 굉장히 그랬으면 싶거든요. 어차피 그분들이 이해당사자일테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어차피 경제 관련 그룹에 속해져야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대 유통을 하나 빼더라도 그 안에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. - 저희 공론화 의제 특성상 의견이 많아지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이렇게 나눠보면 어떨까요? - 첫 번째 정책, 두 번째 도시계획, 세 번째 지역경제, 여기에 아까 말한 소상공인이나, 대기업, 유통이나 들어갈 수 있고, 상공회의소 단체도 들어갈 수 있고, 네 번째 시민, 다섯 번째 이해당사자, - 이해당사자는 지역경제와 붙일 수도 있는데 아까 NGO부분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좀 치열하게 찬반을 할 수 있는게 어떨까요.

위원장	-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.
○○○ 위원	- 그런데 또 이 부분을 고민해보셔야 되는 게 그룹이 적다고 해서 시나리오가 적어지는 건 아니거든요, 왜냐면 그룹을 적게 하려면 보시면 안에 소상공인 넣고, 유통상 넣고 여기 넣고 그러면 세사람이 단일 시나리오를 내 놓지 않습니다. 3개 시나리오를 내놓아요. 오히려 그 부분도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성격이 유사한 집단으로 묶어 놔야 하나가 나오는 거죠.
위원장	- 네 좋은 의견입니다. - ○○○ 위원님께서 간편하고 정책, 도시계획, 지역경제, 나중에 단어는 바꾸더라도 시민, 이해당사자 5개 그룹으로 가자고 아주 좋은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이해당사자가 되면은 의견이 완전히 대립이 되버려서 합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거 같긴 한데, 과연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?
○○○ 위원	-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이해관계자지 포괄적 이해관계자는 아니죠. 이해관계가 안된 사람이 어딴겠습니까? 구체적으로 매출액이 떨어진단지 하는 소상공인들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.
위원장	- 저는 하나 여쭙보겠습니다. 위에 단어는 조정한다 할지라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말이 정의가 된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고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말이 정의가 잘 안된다고 한다면 이해관계자 그룹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합니다. - 그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것에 동의가 되면 이해관계자를 한 그룹으로 넣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관계자가 한 그룹으로 형성될 수 없다고 봅니다. - 그래서 만약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본다면 여기에 포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우리 ○○○ 위원님께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그룹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죠.
○○○ 위원	- 정의라고 하면 대한방직 개발 방향에 따라 경제적 손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시민, 이 정도로 봐야 될거 같습니다.

위원장	- 이해당사자를 정의를 하셨습니다. - 그 다음에 또 ○○○ 위원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?
○○○ 위원	- 제 생각에는 큰 틀에서 생각할 때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
○○○ 위원	- 그런데 아마도 말씀드렸지만 각 그룹에 실은 다 이해관계자입니다. - 왜냐하면요 정책입안자는 실은 이게 공공갈등은 대부분 정책입안자가 이해관계자입니다.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니까 -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. 도시계획도 하시느 분들이 전문가라고 해도 다 이해가 있습니다. - 세 번째 건설업계나 아까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도 경제 쪽에 다 이해관계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시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일 수 있어서 그 이해관계자를 전체로 따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룹화 하느냐 이 문제거든요. - 그래서 저는 굳이 저렇게 이해관계자 그룹을 만들지 않고, 차라리 각 그룹에 나뉘어서 들어가 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
○○○ 위원	- 저도 이해관계자라는 저 그룹은 논의를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실효성은 별로 없지 않은 그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위원장	- ○○○ 위원님
○○○ 위원	- 저는 지금 정해진 그룹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. - 다만, 인원수를 정하고 그 인원을 모집하는 방법이 아무래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
위원장	- 알겠습니다. 우리 ○○○ 위원님
○○○ 위원	- 내용을 고려하면 지금 총 인원이 30명 내외이므로, 7~8명 정도의 4그룹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해관계자들은 분산해서 각 그룹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.
위원장	- 그럼 어느정도 의견을 반영하여 구성기준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룹명에 있어서 정책, 도시전문가, 지역경제, 시민 4그룹으로하고 그리고 5그룹은 이해관계자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

#. 회의날짜 선정	
위원장	- 회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- 바쁘긴 하지만 운영세칙에 따라 2주를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. - 7월 1일 오후 4시 괜찮습니까?
위원 모두	- 좋습니다.
위원장	- 그러면 다음 회의는 7월 1일 오후 4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- 다음에도 참여단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겠습니다. - 그리고 추가로 자광으로부터 설명을 다음번 회의에 듣는 것은 어떠신가요?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○○ 위원	- 자광의 브리핑 시간, 질의응답 시간을 명확히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.
위원장	- 여기서 결정을 하죠. - 20분이면 되지 않겠어요? 설명 20분에 질의응답 30분 해서 1시간 정도에 시간을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- 별도 요구하실 사항은 따로 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. - 그럼, 제3차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-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